

北韓通信의 현황과 그 展望

洪承元
(京畿日報 論說委員室長)

■ 차 례 ■

- ① 머릿글
- ② 北韓通信 政策의 성격
- ③ 遞信行政의 특성
- ④ 분야별 通信實態

- 가. 電信 電話분야
- 나. 衛星通信분야
- 다. 有線通信
- ⑤ 통신정책의 전망

① 머릿글

세계적으로 통신산업은 이제 비약적인 발전을 보게되었다.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사회 각부분에 까지 영향을 주어 급격한 변화를 초래시키고 있는 것이 통신산업의 발전추세다.

이러한 변화를 토폴러(Toffler)는 제3의 물결이라 한바있다. 제1의 물결은 農業혁명을 의미하고 제2의 물결은 산업혁명, 그리고 근래에 일고 있는 변화인 정보통신혁명은 제3의 물결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통신혁명이 北韓에도 일고있는지, 만약 일고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수준에까지 와있는지 관심이 아닐수 없다. 이같은 관심은 지금의 남북대화 및 交流진척의 幅을 넓힐수 있는 최대의 관건이 바로 “通信”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 이유는 남북한 분단의 성격이 특이한데서도 찾을 수 있다.

지금의 남북관계는 근 반세기간 분단상태가 長期化되면서 극도의 異質化가 심화되었다.

이같은 이질화를 좁힐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극히 非정책적인 機能接近을 통한 방안이고 그중에 대표적 기능접근방식이 바로 通信交流다. 이같은 실증은 동서독통일에서도 찾아볼수 있는데 통신매체에 의한 정보교류로 동독주민의 70%가 평소 서독TV나 전화를 이용했다는(註1) 사례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때문에 그간 未知의 세계에 가려져있던 북한의 통신실태는 이해의 측면못지 않게 통일문제에 선결과제가 될수 밖에 없다. 이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남북간 通信交流協定체결사안도 이와 밀접한 관계가 된다.

이런 북한실태파악의 당위성에서 이글에서는 북한 통신의 성격을 파악함으로 북한통신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보탬이 되고자한다. 다음 통신정책의 특성을 이해함으로 추진방법, 방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분야별 실태를 파악함으로 지금 북한 통신의 수준 및 앞으로 통신교류의 가능성여부를 진단하자는데 본글의 취지가 있는 것이다.

2) 北韓通信 政策의 성격

북한 通信政策의 이해는 다른분야가 모두 그러하듯 이른바 「北韓式」 논리로 풀어야 이해가 간다.

이같은 논리에서 볼때 북한에서는 본래 통신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통신(우편, 전신, 전화)을 접수하는 사업을 통하여 사회적 생성과정과 주민생활에 복무하는 경제부문(註1)이라고 「경제사전」에서(註2)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 사전에선 通信이 전달하는 형태에 따라 전기통신, 우편통신, 방송등으로 크게 구분한다. 그리고 통신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전기통신에서는 유선과 무선으로, 우편통신은 정기간행물을 배포하고 편지, 소포, 송금등의 업무를 실현한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북한에서는 넓은 개념에서는 통신의 매체 전달 및 구분유형등에서는 자본주의 국가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通信 生産物이 적용되는 범위에서는 근본적으로 견해가 다르다는 점이다. 체신의 본래의미인 社會間接資本으로서의 역할인 인간의 質的인 삶을 제고시키는 주민 便益의 사회적인 기능이나 公共性에 기여한다는 공익성이 아닌 철저히 사회주의식 발상으로부터 출발한다.

통신에 대한 이같은 견해는 결국 통신의 적용으로인한 경제적 측면에서 산업전반에서 야기되는 생산성 향상에서 국민경제의 경쟁력 제고나 서비스의 창출로서 산업의 기술개발촉진 및 생산성향상을 도모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에서 추진되어 왔다.

이에 북한은 통신 그 자체가 새로운 물질적 형태의 생산물을 생산하지는 않으나 서식을 전달하는 생산활동 「체신 생산물」을 생산한다는 특성을 갖는다고 보고 그 실질적인 기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체신은 통신 통신망에 의거하여 당과 국가경제기관들이 생산과 건설에 대한 지도와 지휘를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며

경제 부문들 사이나 공장 기업소상호간 도시와 농촌사이의 생산소비적 연계를 지어준다」(註3)고 밝히고 있다.

그뿐만아니라 체신은 방송을 통하여 「우리 인민들과 해외동포를 세계혁명적 인민들에게 主體思想을 널리 선전하여 당의 노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제때에 전달 침투하는데 이바지 한다」고 밝히고 이 방송의 범위도 有線放送, 라디오방송, 텔레비전방송을 체신의 범주로 하고 있다.

이와같은 체신의 시각은 처음부터 통신매체가 社會主義 계급적 성격을 가지고 출발한 점이란데 있다. 이를 입증해주는 논리가 「자본주의하에서 체신은 지배계급인 자본가 계급의 수중에서 인민대중에 대한 통치수단으로 이용된다」고 밝히고 있다는 데서도 가늠할 수 있다.

북한에서 社會主義 通信이 시작된 시기는 역시 정권수립초기 사회주의 生活樣式과 개조의 시기와 맥을 같이한다. 1946년 8월 산업분야에서 사회주의적 경제형태의 확대와 「자립적 민족경제 토대구축」이란 계획경제가 나왔다. 이때 「산업·교통·체신등 국유화에 관한 법령」도 공포된 것이다.(註4)

당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6차회의에서 김일성이 「체신사업을 개선한데 대하여」란 제목하에 「체신제도를 청산하고 새로운 인민적 체신제도를 세우며 그것을 부단히 개선강화하는 것을 민주전선을 건설하기위한 하나의 중요한 과업」이란 내용의 체신개혁의 중요성을 밝힌바 있다. 그로부터 체신의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하나의 도구로 역할을 하게된 것이다.(註5) 그후 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인 主體思想이 구체화 됨에 따라 체신의 기능은 「주체체신」이란 경지로까지 바뀌게 되었다. 즉 「체신은 인민들에게 주체사상을 널리 해설 선전하여 당의 노선과 정책의 타당성을 제때 전달하고 침투하는데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주체와 체신의 연관성을 통해 주체사상을 주민들에게 생활화 시키는 보급기능은 각종 매체들이 수행한다는 것이다.

③ 遞信行政의 특성

북한 遞信行政의 특성은 일반행정특성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데 이는 당과 행정조직이 철저한 構造的 從屬化 현상을 지닌다는 것이다. 즉 “정치기능과 행정기능의 重道化(Over-Lap)” 현상이다.(註6)

이런 공산주의의 전형적 현상이 북한에서는 黨과 行政體系가 국가주석 김일성을 정점으로 하는 專權의 1인체제로까지 변형됨으로서 행정의 정치적 중점이 거의 완전무결하게 제도화되어 있고 이경우 행정의 당에 대한 종속화 예측화는 불가피할수 밖에 없다.(註7)

때문에 체신행정도 이같은 북한행정체제의 특성에서 그 본질을 찾아야 한다. 이같은 맥락에서 체신행정직제도 본 당과 행정기구의 2원적 원리에 의해 움직여진다고 볼수 있다.

그간 직제의 변천 과정을 보면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산하의 체신국으로 발족되어 다시 1948년 정권수립과 동시에 체신성으로 개편 발족되었다. 그후 1963년 체신업무에 대한 지휘체계의 집중화를 위하여 모든 체신기구를 체신성에 통합시켜 單一運營體系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1967년에 개정된 직제로는 체신성 산하에 각 도 및 직할시의 체신管理局를 체신處로 개칭하였다. 그리고 각 도단위의 체신처 밑에는 각각 1개씩의 전신전화국과 우체국을 두고 각 市, 道, 郡에는 체신所, 그리고 각 里와 勞動者區(註8)에는 체신分所가 편성되어 있다.

1972년 新헌법 제정에 따라 종전 내각이 政務院으로 개칭되면서 내각이 같던 정책결정권을 분리 새로 신설된 중앙인민위원회에 넘기고 지금의 정무원은 주석과 인민위원회와 행정적 집행권만을 갖는 下位の 행정기관으로 성격을 바꾸었다.(註9) 이에 따라 체신직제도 종전 중앙인민위원회 산하의 철도성과 해운 및 陸運省을 통합하여 交通遞信委員會로 바꾸었다가 1976년 12월에 다시 체신部로 분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후 모든 체신정책의 수립을 국가주권의 최고 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에서 경제정책 입안에 입각해 체신부문에 대한 계획도 수립한후 政務院의 승인을 거친후 체신부로 이관하는 독특한 행정체제를 유지하고 있다.(註10)

나아가 체신부의 주임무는 체신분야에 대한 계획작성, 실행, 기술지도 자재 및 보강, 대책수립 연구기관 운영등을 책임지고 계획된 수립을 집행한다.(註11)

좀더 구체적으로 업무내용을 구분해 보면 ①체신정책의 수립 및 집행 지휘 감독 ②각종 우편물 및 출판 배부업무의 포장 ③전신전화 시설의 계획 및 건설 관리 유지 ④무선전파의 통제 및 감독 ⑤공산 국가들간의 통신업무에 대한 정책 수립, 협정 체결, 업무 집행 감독 ⑥체신기술요원의 양성 및 확보에 관한 계획 실시 지휘 획득 분배 ⑦체신분야에 소요되는 일체의 자재 설비에 관한 계획 및 획득 분배 ⑧전시체제하에서의 체신업무관장 ⑨省 산하 전체기관의 영리업무에 관한 계획 ⑩북한 체신분야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실적 보고와 통계 유지 등의 임무를 하고 있다.(註12)

그후에도 편제에는 큰 변동이 없었는데 현재까지 군단위의 체신所 임무와 그 편성을 보면 郡內의 전신전화, 우편, 유선방송의 증폭 증계, 저금 등의 업무와 각 里단위의 체신分所까지를 지휘 감독하고 있다. 또한 조직편성을 보면 無電室, 簿記室, 有線放送室, 線路班, 交換班, 修理班, 通信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후 북한의 체신정책의 영역별로 分化를 가져온 시기는 1980년 이후부터다. 金日成에 의해 주도되는 3차 7개년 계획중에 科學技術을 발전시켜 기술혁명 운동을 전개한다는 「社會主義 經濟建設 10大展望目標」 실현에 따라(註13)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다는 정무원 개편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체신部를 3개 분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대표적 직제가 84년 合營法 제정공포후 가장 낙후된 분야에 중점투자를 한다는 계획하에 電子 工業 自動化 工業의 기초 확립 및 서방 기술 도입을 위해 1988년 政務院기구를 개편한 것이다. 그 당시 생긴 직제가 合營工業部와 電子 自動化 위원

회이다.

특히 전자자동화 위원회는 최첨단 전자통신 공업발전을 위한 외국과의 합작교류의 일환으로 신설된 직제다.(註14)

그밖에 放送과 通信기능을 겸하는 기능으로 放送技術직제가 있다. 이 기구는 편제상으로는 「조선 중앙 방송위원회」가 관장하도록 되어있으나 시설관리및 방송실무적 업무만 맡고 전반적 방송편성은 노동당의 선전선동부와 통일선전부가 지도하는 2元體制로 운영되고 있다.

4 분야별 通信實態

북한의 전반적인 통신실태는 아직도 그 機能이 行政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주민들에게 정책을 전파하는데 국한되어 있어 있음이 뚜렷해 구조적으로 영세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 電信 電話분야

북한이 전신전화 부문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시기는 1970년 이후부터다. 대내통신망은 평양을 중심으로한 중앙집중체제로 이루어졌으며 道까지 초단과 중계통신이 실시되고 道와 郡사이에 통신회선의 多重化가 추진되어 주요 기업소들은 중앙과 직통시키고 郡체신소들과 주요기관업소들에 區內전화의 자동화가 실시되었다.

73년 김일성이 「새로운 산업전화」지시에 따라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오던 日 통화로 반송전화기와 중계기들을 자체생산하게 되었고 그 결과 각 도간 總局과 經營局, 총국과 주요산업 기업소간의 전화산업망 확충이 시도되었다.

또한 3通路로 반송기 생산은 그전에 비해 2.5배이상으로 늘려 모든 行政單位와 기업소간의 통신다중화를 실현하게 되었으며 그후 80년 이후까지 계속 집단적 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하고 통신과 방송을 비롯한 체신설비의 중장비들을 개선 강화하여 관리 운영체계를 제고하여 체신 總生産額을 80년 이전보다 110.4% 초과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양을 비롯한 중요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手動交換시스템에 의존하고있다. 전화는 약 30만회선 정도가 있으나 이중 자동전화는 3~4만회선에 불과하고 일부 모르쓰通信도 운영되고 있다.(註15)

市外전화는 전화망 체계가 중앙집중회로로 되어 있다. 때문에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중앙, 도, 군, 읍 및 중요산업기지를 연결하는 행정목적 위주의 전화망 건설로부터 시작되었다. 시외전화 실태를 보면 1955년 12월에 조직된 「사회주의국가 체신협조기구」의 가맹국으로 우편 통신분야에 관한 대외협정이 체결된 국가들과 회원국 상호협조를 이루고 있다.

그 일환으로 평양-북경, 모스크바를 연결하는 무선망과 신의주-북경, 청진-불라디보스톡간을 연결하는 유선망이 형성되어 있고 서방권에는 평양-싱가폴, 홍콩간의 單波無線과 중국의 북경 지구국을 중계地로하는 간접통신망이 연결되어 있었으나 1986년 3월 평양근교에 일본, 프랑스 기술진의 참여로 衛星通信支局이 건설되어 위성 통신을 통한 직접통신이 가능하게 되었다.

텔렉스 시설은 1980년대부터 對外貿易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일본, 서독으로부터 텔레타이프를 도입해 지방의 관공서와 주요 기업소, 무역상사등 무역관계기관등에 설치하는 한편 일본, 싱가포르등과 고정 텔렉스망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註16)

80년대 이후 체신부문의 총체적 실적은 기존의 통신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평양과 각 지방간 국가경제 기반들과 生産單位간의 통신 效率性을 높이는데 주력하여 105%의 성과를 올렸다고 밝히고 있다.(註17)

이같은 실태를 놓고볼때 80년대 후반의 통신정책은 「주체성」과 「자립성」을 강화하고 통신과 방송시설들을 현대화하여 체신운영을 科學的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아래 추진되었다. 이같은 계획은 3차7개년 계획의 하나인 통신분야 육성을 과학 기술개발 3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계획의 일환에서 전개된 것이다. 기계공업, 극소형 전자공업,

로봇 공업등의 발전을 통해 설비의 현대화와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 전자계산화등이 구체적인 사업개요다.

그 일환으로 전자공업위원회를 발족시키고 大안자동차공장, 平川자동화종합공장 등에서 산업용 로봇을 생산하고 있으며 1987년 유엔 개발계획(UNDP)의 일환으로 설립된 平成반도체 공장에서 직접회로의 시제품도 생산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부문의 생산규모나 기술수준은 초보단계에 불과하다. 본래 북한통신과 관련한 UNDP 지원사업을 1979년 이후 1단계사업으로 80~86년간 농·수산업, 수송, 통신, 공업분야의 기술및 연구를 위해 2천50만달러 상당의 자금지원과 2단계사업(87~91년)으로는 보건, 공업, 과학기술등 8개분야에 1천5백14만달러를 제공받기로 합의한바 있다.

나. 衛星通信분야

북한에 위성통신이 본격화된 시기는 1980년부터다. 84년 중공의 지원으로 평양에 기상정지위성 수신소를 건설 85년에 완공을 보게되었다. 이 시설은 단순히 기상위성 수신소로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지금까지 통신위성수신 시설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상위성수신과 통신위성시설의 기능을 동시에 갖는 일종의 기상과 통신위성 수신시설의 복합시스템이라 할수 있다. 이를 입증하는 것으로 북한의 관영통신은 「평양에 국제위성국이 일어서고 있다」고 보도한바 있다.(註18)

이 시설에는 현대적인 우주통신 설비들이 갖추어져 있으며 위성을 통해 세계각국과 전신, 전화, 텔레비전 사진전송등의 통신기능을 수행한다고 발표했다. 시설과 규모는 년평균 수천km에 10층, 5층, 3층의 복합건물로 건설되었고 주요 내부시설로는 지구를 선회하는 기상위성에서 내보내는 자료의 수신설비와 한반도가 위치한 지역에서 상공에 고정되어 있는 기상위성에서 보내는 자료를 받는 설비 그리고 구체적인 자료들을 자동분석 처리해주는 대형 컴퓨터장치의 설치 등이 있다.

그동안 평양과 元山觀測所에서 기구를 이용 30km 상공에서 기압, 기온, 풍속등을 측정하는 고층기상관측에 의해 기상자료를 작성하고 북한 각지에 산재해 있는 27개의 관측소에서는 지역 기상자료를 작성해 왔다.

그리고 작년 9월에는 유엔개발계획의 지원으로 일기예보의 과학화에 기여할 기상위성수신소를 준공했다고 발표했다. 이 수신소는 지난해말 설비조립을 완료 그동안 시험사업을 거쳐 준공함으로써 지금까지 일기도에 의해 예보하던 것을 위성수신 영상화면에 의한 구름분포와 대기층의 기상상태 바닷물 온도자료등을 직접 보면서 예보를 보다 과학적으로 할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다. 有線通信

북한의 통신분야에서 큰 비중을 두는곳이 有線放送이다. 이 분야에 관심을 두는것은 정치적 통제의 일환인 선전선동교육 정보통제및 주민동원에 있다.

시설비용이 절감되고 지방중계소에서 독자적, 방송프로의 제작이 용이하고 지역단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편리한 이점이 있다. 이 방식은 해당지역까지 케이블을 가설해놓고 해당지역에 간단한 앰프시설과 스피커만 갖추면 가능하므로 방송케이블은 전화선을 겸용하기도 한다.

이 방식은 1961년 평양방송국과 전국지방방송국에 10개소가 또 각 군에는 체신소라는 명칭의 중계소와 각 里단위로 체신分所라는 방송실을 설치했다. 70년대이후 방송출력의 강화와 함께 공동작업장과 대중 집합장소등에 방송시설을 확장하면서 고성기의 가입자 전압을 올리는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77년에 평양유선방송국은 600kw의 출력을, 각 시, 도 유선방송국은 100kw의 출력을 송출하였다. 이에 수신기종이 전 가호의 65% 보급됨으로 총175만대의 수신기를 보유하고 전국의 가청율이 85%에 이르렀다.

이 제도는 80년대 이후에도 계속돼 84년 6월28일 「체신법」에는 전국이 유선방송화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5 통신정책의 전망

북한의 통신산업은 다른 어느 산업분야보다 뒤늦게 출발한 점이 특성이다. 나름대로 통신발전이 시작된 시기는 80년대 이후인데 이때도 일반가입자의 수요우선이 아닌 産業電話나 유선방송의 보급이 끝난것으로 추정된다.

이와같이 통신산업이 낙후될수밖에 없는 이유는 산업의 성격상 대외개방정책과 비례하는 것이며 이에따라 대외 자본 기술이 막대하게 투자돼야 할 산업이란 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북한의 「체제교수와 부분개방」이란 대외정책때문에 늦춰질수 밖에 없었고 또한 국내 통신산업의 구조적 취약점때문에 수용될수 없는 문제도 있다.

즉 사회간접시설의 낙후, 內需市場의 협소로 규모의 경제성과 국제분업의 경제성을 상실하게 되고 그 밖에도 대외정보 폐쇄, 국제적 신용부재, 고급인력부족 등이 그 원인이다. 바로 이런 구조적 취약점을 그대로 둔채 이른바 자력생생의 원리인 「주체경제」란 슬로건아래 동원기능을 통신사업에 이용하고 있다. 바로 통신관련 사업소 직원들을 대상으로한 충성勞役방식등이 그 사례다. 그러나 통신사업은 사안의 성격상 이같은 1차동원방식에 의할수만 없다. 때문에 지금의 북한式 개방정책에 북한통신의 앞날을 기대해볼수 밖에 없다.

참 고 자 료

註1. 徐丙喆 “東西獨의 실질적 交流와 국가통일정책” (1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刊) 1986 학술세미나 논문집 p85

註2. 「경제사전」(북한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1970

註3. 위 「경제사전」

註4. 北韓法令沿革集 「북조선 임시위원회」 법령발표 (高麗大아시아문제연구소)

註5. 北韓經濟論 (北韓研究所 1978) p353

註6. 李常民 “社會主義국가의 官僚制度”(高麗大 아시아문제연구소 제81호 1989) p12 「아시아 연구」

註7. 白完基 “北韓 行政機能에 관한 研究”(국토통일원 1989. 12. 연구논문) p8

註8. 勞働者區단 1952년 종래의 面단위 기관을 폐지하고 도, 시(군), 리의 3단계 행정구역을 구성하면서 공장, 광산, 어촌의 里중 400명 이상의 임금노동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설치된 地方行政區域이다.

註9. “北韓憲法” 제89조-114조 참조

註10. 洪承元 : “南北韓 通信交流가능성 진단”(텔레마티크 문명과 情報文化, 韓國通信學會) 1989

註11. 朴完信 “北韓行政論”(회성출판사 1988) p139

註12. 南北韓 우정실태및 通信交流방안연구(국토통일원 1986)

註13. 南北韓比較 叢書(1988 국토통일원) p64

註14. 內外通信 제629호 1983년 3월3일 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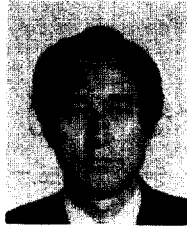
註15. 북한경제개관(1988 국토통일원) p68

註16. 洪承元 “北韓電氣通信의 특성과 實態”(電氣通信論叢 제1집 1990) p366

註17. 「중앙방송」 1984년 8월24일자보도

註18. 내외통신 4430호 1986년 3월5日 字

註19. 내외통신 5019호 1987년 3월30日 字



洪承元

저자약력

- 국립체신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 및 동대학원 정치학과 졸업
- 경남대 정치학박사 수료
- 체신공무원 교육원 교수지냄
- 북한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지냄
- 현재 한국외국어대학 북한학 강사 및 경기일보
논설위원
- “북한학 서설”(외대교재)
- “북한 사회인식”(외대교재)
- 남북한 통신교류 가능성 진단(한국통신학회 체신의
날 강연집)
- 북한 통신 정책에 관한 고찰(한국통신 논문집)
- 북한 사회통제변화(북한학보 논문)